왕릉 선정사업 참여…해남이 낳은 名風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22〉

■ 이의신과 윤고산

혈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묘지나 집터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쓸 수 없는 것이 있다. 또한 혈의 성정을 음택에서 양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산신이 지키고 있는 혈과 지키지 않는 혈이 있으며, 용사(用事)해서 복이 되는 것과 재앙이 되는 혈도 있다. 혈의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것과 끌어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혈의 정(定)과 역(易)이라고 한다.

관두산 24혈 가운데 음택을 양택으로 그 성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두 곳이다. 건,곤,간,손 입수의 혈과 임,계,병,정의 좌향으로 맺은 8혈은 용사하게 되면 혈궁과 혈궁을 지키는 신장(神將)이 어디론가 숨거나, 떠나버리고 수·화·목렴

이의신, 광해군때 '교하천도론'

(水·火·木廉)의 징벌이 들어오면서 대재앙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렇듯 관두산의 혈들은 대부분 개인이 용사하기 어려운 혈들로서 해남반도와 그 주변 도서지방의 모든 주민들에게 신선한 산소와 활기찬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줄 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두산의 혈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야하는 태상맥(胎上脈)이며, 생명을 배태시키는 신령스러운 지기의 중간 공급기지로서, 만에 하나 계륵같은 재물에 현혹되어 보궁이 훼손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해남의 명당과 명묘를 논할 때, 고산 윤선도의 금쇄동 유택(幽宅)을 거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고산의 유택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명묘들 가운데에서도 으뜸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산태극과 수태극이 이루어져 풍수적 경승(景勝)이 빼어난 곳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곳은 본래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출신으로 조선 중기의 대표적 풍수사인 이의신(李懿信)의 소점(所點)이라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났으나 서출이라는 신분의 벽 때문에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산천경계 떠돌면서 천문과 지리에 심취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선조 33년(1600년)에 선조의 비(妃)인 의인황후 박씨가 죽었을 때 관상감의 임시 관원으로 능(陵) 선정에 참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17년 동안 관상감의 봉사(奉事·종8품)로 근무를 하였다.

1612년(광해군4년) 8월에 이의신은 "임진왜란 이후 역변이 계속되고 조정의 관리들은 분당을 일삼으며, 도성주변의 산들이 흉측하게 벌거벗은 것은, 도성의 왕기(王氣)가 이미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성을 교하현(交河縣=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으로 옮겨 국운이 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하 땅은 한양과 개성의 중간 지점으로서 동으로는 멀리 삼각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북으로는 송악산이 웅장하게 솟아있으며, 서로는 한강이 넓게 수회(水廻)하여 배가 다니기에 충분하고, 남으로는 옥야천리(沃野千里)하여 오곡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소위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을 상소로 올려 당시의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사헌부와 홍문관, 그리고 사간원 등에서 그해 11월부터 3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이의신을 처벌하여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임금에게 요구했지만, 광해군은 오히려 이의신에게 실질적인 관직인 종6품의 예빈시 주부(主簿)로 영전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1623년 광해군이 폐위될 때 수많은 풍수사가 처형되었는데, 이때에도 이의신은 몸을 피해 명나라로 건너가서 주부의 벼슬을 지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의신으로부터 풍수지리를 배운 고산 윤선도(1587~1671)는 효종이 승하했을 때 좌의정 심지원의 추천으로, 관상별감이 되어 왕릉 선정에 참여하여 지금의 화성에 왕릉 터를 잡아 추천한다. 하지만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반대로 무위에 그치고 마는데, 나중에 정조대왕이 그곳에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이장하여

고산, 무학대사에 버금가는 神眼

융릉(隆陵)이 되었다. 이 때에 정조가 고산을 가르켜 당대의 '무학대사'에 비견되는 '신안(神眼)'으로 평가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이러한 이의신과 윤고산 사이의 소위 '명당 빼앗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의신이 고산의 집에서 식객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밤마다 말을 타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새벽녘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고산이 어느 날 그에게 많은 술을 먹여서 잠이 들게 한 다음에 이의신의 말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말은 언제나처럼 습관적으로 가다가 한 곳에 멈춰 섰는데 고산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천하의 명당이었다.

이튿날 고산은 이의신에게 자신의 신후지지로 잡아놓은 땅이 있으니 한번 봐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응하여 이의신이 고산과 함께 가서 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잡아놓은 땅이었다. 크게 놀란 이의신이 고산에게 '명당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곳을 고산에게 양보하였다"고 한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한국의 명묘(名墓)들 가운데 으뜸 반열에 올라 있는 고산 윤선도의 금쇄동 유택.

■ 전라도 역사이야기

-목포 '아리랑 고개' 송덕비

사비로 유달산에 우물 판 정인호 선생 은덕 기려

목포시는 동쪽으로 영산강 하류를 끼고 서쪽으로는 다도해를 바라보는 폭 10㎞, 길이 20㎞ 정도의 무안반도 남단에 있다. 개항 당시 목포는 산모퉁이 아니면 갯뻘로 평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시가지는 모두 바위를 깎거나 바다를 막아 만든 것이었다.

그 후 시가지는 계속 확장되었지만, 지금 사람이 사는 땅의 80% 가량이 매립지인 것처럼 목포는 이른바 '매립의 도시'였다. 뻘을 메워 만든 땅이라 우물을 파기란 애당초 불가능했고 고지대에 간혹 샘이나 우물이 있었지만 양도 적고 질도 떨어져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칠 뿐이었다. 그래서 목포는 개항될 때부터 '물 부족'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목포에는 물과 관련된 힘든 사연들이 많다.

돌산인 유달산 기슭에 우물을 파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혹은 부산에서 사람을 불러다 파 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우물 파기가 이렇듯 어려웠는데 이 때 누군가 석유처럼 귀한 물을 파는 일에 선뜻 큰돈을 냈다면 마땅히 송덕 받을 일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유학정인호시혜불망비

서산초등학교에서 유달산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일명 아리랑고개) 중간쯤에는 아마 목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독특한 비가 하나 있다. 1922년 5월에 세워진 비로, 이름하여 '유학정인호시혜불망비(幼學鄭麟浩施惠不忘碑)'. 물론 유학 정인호가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고자 세운 비라는 뜻이다.

불망비 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비가 각별한 이유는 그 시혜 내용 때문이다. 즉 정인호가 "천금의 돈을 출연하여 우물을 파서 물 없는 마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 덕을 기리고자 비를 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물을 판 일로 송덕비를 세우는 일은 극히 드물 터인데 목포에서라면 송덕비를 세울 만한 일이었다.

아마 이 일에 자극 받았음인지 우물 파는 일은 목포 유지들의 주요 자선사업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정인호가 팠다는 우물은 지금도 남아 있어 옛 목포의 어려웠던 물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석규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21)

"지 애비 에미를 버리다니…"

우리말의 'ㅏ, ㅓ, ㅗ, ㅜ'는 후설모음이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전설모음(또는 반모음) 'ㅣ'를 가진 음절이나 형태소가 이어질 때 앞의 모음이 전설모음 'ㅐ, ㅔ, ㅚ, ㅟ'로 바뀌는 일이 있다. 이런 현상을 움라우트(Umlaut), 또는 'ㅣ 모음 역행동화'라고 한다. 이런 변이의 원인은 발음노력을 줄이려는 언중의 심리에 기인한 것인데, 전북의 일부를 제외한 전라도방언에 매우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아기→애기, 아비→애비, 남기다→냉기다, (약을)달이다→댈이다, 차리다→채리다, 피라미→피래미, 손잡이→손잽이, 두꺼비→뚜께비, 벗기다→벳기다, 석유→섹유/식우, 부스러기→뿌시레기, 어미→에미/이미, 먹이다→멕이다/믹이다, 고기→괴기, 꼬뻬→꾀뻬/께뻬, 토끼→퇴끼/퇴껭이, 죽이다→쥑이다'처럼. 이 밖에도 전라도방언에서는 "댁(닭)이 몇 마리냐? 잼(잠)이 안 온다. 땡(땅)이 얼었구나. 뱁(밥)이 되아서 멕(먹)기 싫다. 쇡(속)이 애(아)려 죽겄다"와 같은 말을 자주 쓴다. 위의 예와 음운환경은 아니지만 음절 끝의 'ㅏ,ㅓ'가 'ㅐ, ㅔ'로 바뀐 낱말도 많다. '가마→가매, 독새, 방애, 부애, 자래, 치매 : 농에, 숭에, 짱에, 홍에' 등.

/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금강애기나리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높고 깊은 산 속 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키는 30~70cm 정도다.

중·남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죽대아재비와 비슷하지만 꽃이 가지 끝에 달리는 것이 다르다. 민간에서는 자양·강장제로 사용한다.

/라규채 생태사진가